

기타 치며 돌아온 김재환 “색깔 진해진 ‘체인지’, 자신 있다”

세 번째 미니앨범 ‘체인지’ 기자간담회

라틴팝 장르의 타이틀곡 ‘찾지 않을게’

어느새 솔로 2년... “편안하게 즐기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 제가 제일 멋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좋은 곡을 만나 만족스럽고 감회가 새롭죠.”

1년4개월 만에 가수 김재환이 돌아왔다. 그룹 ‘워너원’ 이후 2019년 5월 솔로 가수로 나선 지도 벌써 2년이 됐다.

김재환은 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 번째 미니앨범 ‘체인지(Change)’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앨범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번에 시도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미니앨범 ‘체인지’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찾지 않을게’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체인지’는 지금까지 변화해온 모습을 의미하는 ‘ed’ 버전과 앞으로 변화할 모습을 의미하는 ‘ing’ 버전으로 나누어 ‘변화’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앨범 이름처럼 스타일에도 변화도 됐다. 김재환은 “이번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살도 빼고 머리 카락도 길렀다”며 “배우들이 역할에 몰입하듯이 저도 곡에 몰입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다. 표현력에 있어 곡마다 주인공이 다른데, 주인공마다 목소리와 감성에 변화를 주려 했다”고 밝혔다.

“1년4개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접하는 게 뭘까,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뭘까

고민했는데, 기타가 자주 아픈거였죠.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게 가장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느낌으로 다가왔죠. 저만의 목소리나 감성이 깊어졌고, 색깔이 진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총 8개 트랙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김재환은 작사·작곡 등 다수의 곡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가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찾지 않을게’는 K-팝 느낌을 가미한 라틴팝 장르의 곡으로 신선하고 색다른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레이(Pray)’, HYNH(박혜원)과의 보컬 시너지가 돋보이는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With. HYNH)’, 어반 R&B 장르의 ‘블루문(Blue Moon)’, 산뜻한 멜로디의 ‘꽃인가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애가타’, 경쾌한 보사노바의 ‘신이야’, 애절 느낌의 R&B 장르 ‘손편지’가 포함돼 있다.

김재환은 “발라드 한 곡을 빼고는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상상을 펼치면서 재밌게 작업했고, 음악성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세 시간 안에 네 곡이 나왔고, 저도 신기했다”고 떠올렸다.

특히 발라드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는 싱글 발매를 구상하기도 했지만, 팬들을 위해 수록곡으로 이번에 낼게 됐다. 그는 “제가 쓴 곡은 아는데, 곡이 너무 좋았다. 싱글로 낼까 했는데, 이번에 꼭 넣어야겠다 싶었다. 아끼는 곡”이라고

말했다.

그룹 ‘워너원’에서 함께 활동했던 강다니엘과 윤지성, ‘뉴이스트’ 황민현 등과 비슷한 시기에 컴백하는 데에는 반가움을 표했다.

김재환은 “저도 깜짝 놀랐다. 4월에 다 나와서 너무 좋았다”며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든데, 오랜만에 음악방송에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설레기도 했다”고 활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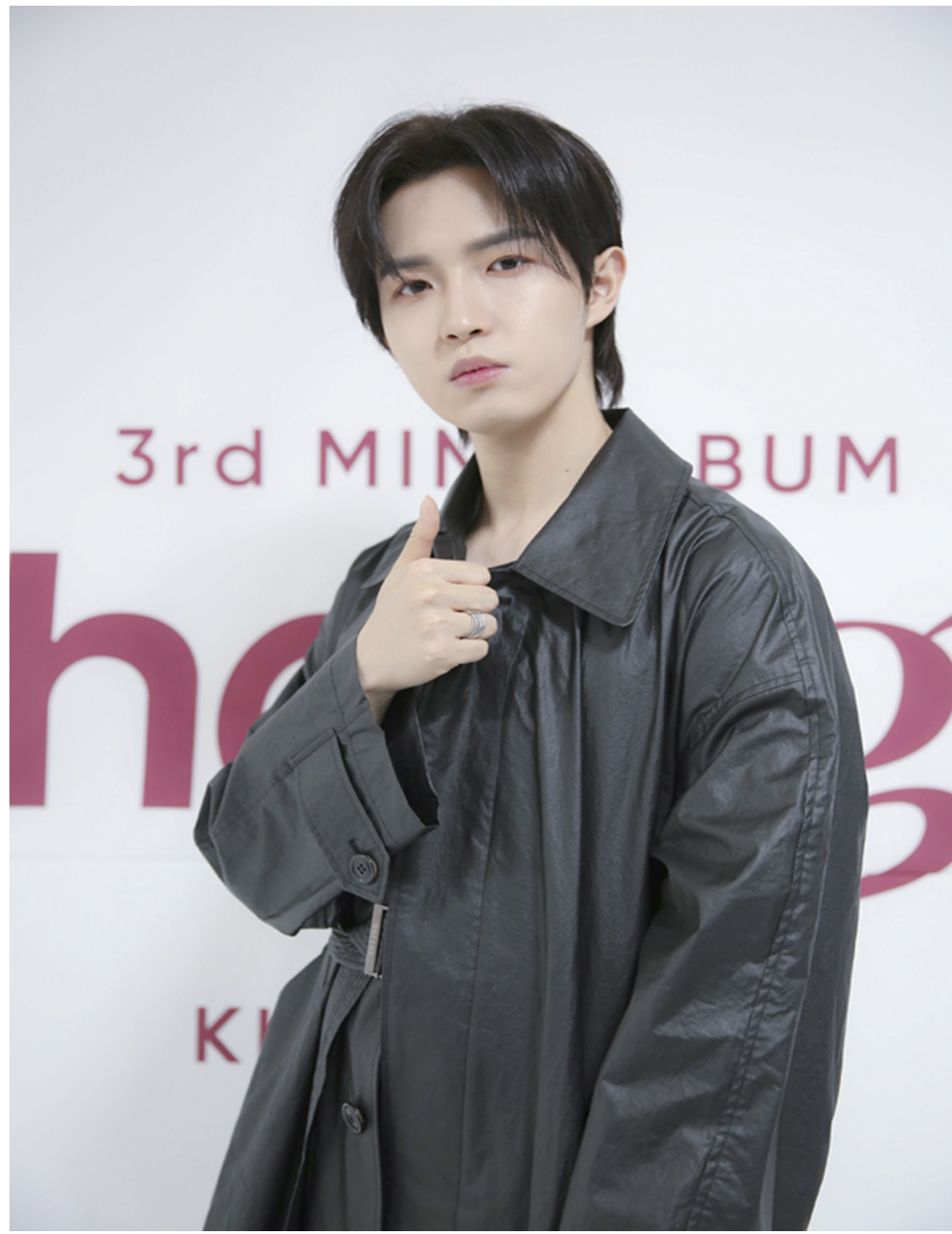
또 ‘엑소’ 백현, ‘워너’ 강승윤, ‘업텐션’ 이진혁 등 남자 솔로 가수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경쟁을 펼치게 된 소감도 전했다.

그는 “사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 너무 맛있는 분들”이라며 “오하려고 저 자신과 항상 경쟁하고 있다. 저 자신을 항상 이기려고, 더 나아가려고 한다. 지금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만,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재환은 “예전에는 성적이 민감했지만, 그제 질 과욕하더라. 조금하게 만들면서 저를 감아먹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음악을 즐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솔로 가수 2년을 맞은 현재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가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음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줘서 회사에 감사하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힘 있는 보컬을 좋아한다. 기승전결이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표현을 잘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 하는 가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나중에는 록 발라드도 하고 싶고, R&B 장르도 좋아하죠. 이번 앨범을 통해 제 변화가 대중들에게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즐기면서 음악하는 모습, 가수 김재환과 사람 김재환의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클릭비 오종혁, 4월 품절남 된다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겸 배우 오종혁이 품절남이 된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오종혁은 이달 서울 모처에서 오랫동안 교제한 비연예인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당초 오종혁은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을 연기하다가 이달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뉴시스

마마무·오마이걸, 한솔밥...RBW, WM엔터 인수

결그룹 ‘마마무’와 ‘오마이걸’이 한솔밥을 먹는다.

마마무 소속사 RBW는 “오마이걸, B1A4, 온앤오프의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를 인수(M&A)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RBW는 WM엔터 최대주주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달 31일 거래를 완료했다.

RBW는 신주 및 구주를 포함 WM엔터의 지분 70%이상을 확보, 자회사로 편입했다.

2010년 설립된 RBW는 김도훈 작곡가가 대표 프로듀서를, 총괄 경영에 뮤직비즈니스 전문가 김진우가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마마무를 비롯해 원어스, 원위, 퍼플키스 등이 소속돼 있다.

WM엔터는 2008년 문을 열고 2012년 법인화했다. 가수 출신 김정수 대표이사(예명 이원

앞서 오종혁은 2019년 11월 MBC ‘비디오타’에 출연해 열애 중임을 밝혔으며, 지난해엔 팬카페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오종혁은 예비신부에게 “날 믿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라며 “평생을 함께 잘 그려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1999년 클릭비로 데뷔한 오종혁은 이후 드라마 및 영화, 뮤지컬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 중이다.

민)가 설립했다. 제작 총괄의 김진미 이사와 경영 책임을 맡은 조지현 본부장이 핵심인물이다. 오마이걸을 비롯해 B1A4, 온앤오프, 아이즈원 이체연 등이 소속돼 있다.

이번 M&A를 지휘한 RBW 김진우 대표는 “WM엔터는 아티스트 발굴·육성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이며 상호 각각의 축적된 노하우가 다른 만큼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전략사업들을 개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K-콘텐츠’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 이후에도 WM엔터는 RBW와 독자적인 레이블로 기존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에일리, 다음달 전국투어 콘서트 ‘쇼 톡’

‘랜선 채팅’ 시도로 특별한 소통 나설 계획...신곡 최초 공개

가수 에일리가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이 더해진 전국투어 콘서트를 예고했다.

지난 7일 에일리는 개인 SNS를 통해 전국투어 콘서트 ‘쇼 톡’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 속 에일리는 매력적인 눈빛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컬러풀한 에일리의 비주얼이 팬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기 충분했다.

에일리의 ‘쇼 톡’은 오는 5월 1일 군포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적인 소통

뉴시스

이 금지된 가운데, 에일리는 팬들과 ‘랜선 채팅’을 시도하며 특별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쇼 톡’에서는 에일리의 신곡이 최초 공개된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믿고 듣는 가수’임을 증명한 에일리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에일리의 독보적인 감성을 만나볼 수 있는 전국투어 콘서트 ‘쇼 톡’의 자세한 사항은 티켓링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노의 질주’ 신작 다음달 19일 개봉

북미보다 37일 빨라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대한민국에서 북미보다 37일 빠른 5월 19일 개봉한다고 배급사가 8일 밝혔다.

영화는 한국 개봉을 시작으로 6월 북미와 유럽에서 순차 개봉을 예고했다.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사례는 많았으나 북미보다 약 한 달 앞선 개봉은 이례적이다.

배급사 측은 “대한민국 극장과 국민들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와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깊은 신뢰를 표하며 무려 37일 빠른 개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전 세계 50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거뒀다. 신작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시리즈를 책임지고 있는 더 니젤을 필두로 저스틴 린 감독과 오리지널 패밀리들의 컴백을 화려하게 알린다. 여기에 미셸 로드리게즈, 조다나 브루스터 등 막강



한 여성 캐릭터들의 조합과 한국계 배우 성강의 합류까지 더해졌다.

다니엘 헤니, 할리우드 영화 ‘서치2’ 출연 확정

배우 다니엘 헤니가 영화 ‘서치2’에 출연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영화 ‘서치2’의 추가 캐스팅을 발표하면서 다니엘 헤니를 비롯해 니아 롱, 켈 퉁이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치2’는 스톰 리드의 출연 확정 소식

을 전한 바 있다. 메가폰은 ‘서치’의 편지에 참여한 윌 매릭과 니 존슨이 잡는다.

영화 ‘서치’는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모든 화면을 PC 화면이나 휴대폰, 방송 장면 등 전자기기 스크린으로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이경규, 반려견 덕분에 방송사고 면한 이유

개그맨 이경규가 반려견 두치 덕분에 방송 사고를 면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7일 공개된 카카오TV 웹예능 ‘찐경규’에서는 ‘개통령’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취중진담 위드(with) 강형욱’ 편이 펼쳐졌다.

이날 강형욱과의 만남 자리에 이경규는 반려견 두치를 데리고 나타났다. 촬영 시작 전 자신의 걸을 떠나지 못하는 두치를 바라보던 이경규는 “내가 예전에 두치와 함께 부산 공연을 간 적이 있다. 두치랑 함께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tvN ‘SNL 코리아’ 생방송에도 두치를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무대를 앞두고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경규는 “그 순간 생방송이 시작됐는데, 두치가 박수 소리를 듣더니 무대로 향하더라. 나는 정신이 없어서 두치만 따라서 생방송 무대에 나갔다. 두치는 명견”이라고 자랑했다.

강형욱은 앞서 두치가 계속 이경규를 돌아본 것에 대해 “(두치가) 형님을 여기 두고가는 게 걱정인 거다. ‘아이고, 잘하고 있냐. 사람 많으면 긴장하는 데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